천국은 종교 아닌 현실이다

(마태복음 13:18~23)

18.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 가에 뿌려진 자요
20.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천국은 종교 아닌 현실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천국은 종교 아닌 현실이다'
지난 주간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외국 선교지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앞두고 국내 호스피스 요양원에서 교육을 받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호스피스 요양원에서 환자로 계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놀랄 만큼 실망스럽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호스피스 요양원은 말기 암 환자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다른 환자들에 비해 이 세상에 대해 강렬한 집착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화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두 분 정도 특이한 분들이 있다면 모를까 보편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몇 번이나 다시 여쭈었더니 믿기 어렵다며 허탈하게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또 호스피스 요양원에서는 아침저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가 방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하는 환자들에게 예배나 찬송이나 기도를 이해하겠다는 서약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환자들 중에서는 스님들도 계시는데 예배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천국을 소망해야 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든 병이 나아서 세상으로 돌아가기만을 소원한다고 합니다. 병원 직원들에 대한 갑질도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가장 심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굳이 강릉까지 오셔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데

에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천국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비유의 의미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대답하시며 천국의 비밀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밝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두 종류의 인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도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천국의 비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비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미스테리온(μυστήριον)입니다. 이 말은 '닫다, 덮어두다'는 뜻의 동사 미에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의 비밀이란 실존하지만 사람의 눈과 귀와 감각에 대해 덮여있고 닫혀있는 사실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곧 천국을 나의 현실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 실존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을 현실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아시는 것과 보신 것에 대해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을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국과의 연관성 아래에서 땅도 이야기 될 뿐입니다. 천국을 제외하면 예수님은 하실 말씀이 아무것도 없었고,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던 셈입니다.
또 13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 중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늘에 있는 천국은 철저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에 붙여졌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으신 것입니다. 32절에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

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비밀을 받아들인다면 분명히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천국의 비밀이 내 현실이 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 삶 자체를 뜻하기도 하고 나의 관심사가 된 대상을 일컫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전달해주시는 천국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천국을 현실로 삼는 것입니다. 집안의 경제 사정이나 문젯거리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개하신 천국을 현실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개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현실로 삼을지라도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조차 그것을 체감할 수는 없습니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성령님을 통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서로를 채우고 계셨습니다. 서로를 통해 충만하셨기에 만족이 생기고 만족이 지속됨을 통해 기쁨이 발생합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만족과 기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요한복음 17장 21절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나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님이 오신 이유도 설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의 13절에서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천국의 비밀은 곧 사랑과 기쁨입니다. 사랑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서로를 채우시는 모습입니다. 기쁨이란 이렇게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온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생겨난 감정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기쁨이 천국의 비밀이라면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알려짐으로써 어떤 변화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일까요? 그 변화가 본문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묵상해야 될 내용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이라는 교제가 있었고 그럼으로써 기쁨이 발생한다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될 때에 세상에 대한 비밀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보고 듣고 만지면서 살았는데 오히려 비밀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유는 천국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면 돈이 전혀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 비밀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입으로 하신 내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몸으로 하신 행동, 십자가에서 승천까지 이어지는 역사도 모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가난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서기관이 기쁨의 대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청렴결백하게 사셨으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청렴결백은 세상에 갇혀있는 마음의 의식구조 안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없어도 굳건하게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의미의 청렴결백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쁨을 추구하는 것처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기쁨을 추구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추구하고 계신 기쁨은 세상에 갇혀있는 의식구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비밀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기쁨의 관계였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면 세상에서 추구하던 기쁨은 휴지조각처럼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지만 그것을 아무 문제로 삼지 않으실 정도로 하나님을 통한 기쁨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갇혀있는 의식구조에서는 알 수 없는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치 씨를 뿌리듯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에 담아서 뿌리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때에 네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19절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 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하였습니다. 천국 말씀은 천국 비밀을 담은 말씀인데 이것을 듣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현실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것을 빼앗기에 영원히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밭과 밭 사이를 보면 좁은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며 굳어진 땅에 밭에 뿌리던 씨가 바람에 날려 떨어질 때도 있고 짐승이 씨앗을 뿌리다가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는 곧 세상의 일들 외에는 관심이 없는 상태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오직 마음의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다른 모든 기쁨의 대상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천국을 애초에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기를 지속하는 사람입

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르침은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왜곡시킵니다. 세상의 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세상 밖의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누리시는 사랑의 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형통하게 하셔서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거리를 얻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천국의 기쁨이 현실로 주어진다는 말씀이 개 짖는 소리와 다름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몰입하고 질주하는 기차와 같은 삶을 멈추고자하지 않습니다. 마치 시속 200km로 질주하는 KTX 열차를 올라타려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은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만취해서 광란의 몸짓으로 춤을 추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술 먹고 춤을 추는 게 기쁨이 아니라, 천국이 진짜 기쁨이라고 해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말씀의 씨가 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망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종교가 말하는 보편적 천국의 모습입니다. 사후에 대한 두려움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천국이라는 소재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결코 천국을 삶과 연관 짓지는 않습니다. 스웨덴의 수도가 스톡홀름이고 프랑스의 수도가 파리이지만 한국에서 살아가는 내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스톡홀름이나 파리에 유학을 갔다면 그곳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현실로 삼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천국은 현실이 되겠지만,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마음이 가득한 동안에는 천국은 결코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사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세상 밖에 있는 천국을 최우선의 기쁨과 현실로 삼을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사후에나 갈 수 있다고 믿는 천국은 종교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낸 천국일 뿐입니다. 살면서 현실로 삼지 못한 천국을 죽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 말로 거짓이고 망상입니다. 사후에 가는 천국은 살아있는 동안 현실이어야 하고 이 현실이 기쁨과 만족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기쁨과 만족으로 느껴지는 현실만이 진짜 천국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20~21절을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밭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갈밭과는 조금 다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흔히 접할 수 있는 석회석 암반지형을 의미합니다. 이 암반 위로 흙이 얇게 덥혀있습니다. 이 암반이 태양열을 흡수해서 온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따듯합니다. 따라서 이런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이 빨리 납니다. 그러나 흙이 깊지 않고 밑에는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석회석 암반이 있기 때문에 금방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이 기쁨인 것을 깨닫고 금세 받아들이지만, 세상의 좋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내 천국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서 천국과 세상의 결투가 일어나지만 세상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결국 천국이 밀려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궁극적인 자리에는 세상의 가치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본문에서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시대나 조선시대 대원군의 박해와 같은 외부의 박해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은 오직 마음에서 최우선의 현실이고 최우선의 기쁨의 대상으로써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천국이 제시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던 대상들에 대해서는 위협이 됩니다. 마음에서 이미 좋게 여기던 대상들이 물리쳐지지 않는다면 천국의 좋음은 내게서 현실로 표현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최고의 좋음으로 여기면서 천국을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천국은 항상 첫 번째 자리에서만 그 좋음과 기쁨을 발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좋은 예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나름대로 영생을 소망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16절에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하였습니다. 무조건 세상을 최고로 여기며 마음이 이 세상에 갇혀서 함몰되어 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듣고 고민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기쁨의 대상이 바뀌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코 기쁨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기쁨과 만족 때문입니다.
세상에 슬프기 위해 불만을 위해 돈을 붙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갖고 있어도 만족이 안 되니까 더 벌려고 할 뿐이지 돈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기쁨 자체가 아니라 기쁨의 출처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의 주안점은 단순히 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을 천국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돈의 자리에 천국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지 손해를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의 마음에서는 많은 돈이 석회암 암반이 되어서 천국을 뿌리내릴 수 없게 막았고, 그 결과 천국의 좋음이 돈의 좋음과 겨루어서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국의 비밀을 알 때에 이 세상의 비밀도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내게 우선적이고 궁극적인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이 이 세상의 비밀까지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풀어보자면 "너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마음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실은 재산은 어떠한 기쁨과 만족의 근원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주는 기쁨이 헛되다는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이 비밀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신 것은 천국의 비밀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살기만 한다면 마음의 기쁨과 만족에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기쁨거리를 다 누리실 수도 있었지만 곧바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갖기 위해 세상을 등질 때에 일말의 아쉬움과 후회도 가질 필요 없으며, 심지어 가능한 빨리 천국을 향하고자 하는 것이 정상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호스피스 요양원에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보여준 삶에 대한 집착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스님보다도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돌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예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처럼 천국에 대해서는 애초에 받아들여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고 싶어 할 정도로 천국을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천국 비밀을 아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쁨거리와 좋음에 마음이 매여 있다면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천국도 좋은 것을 알지만 돈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돈을 건드린다면 교회도 다니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교회고 뭐고 관두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 비밀을 아는 자라면 이 말을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합니다. "기분 나쁘면 돈도 필요 없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천국을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돈이라면 그런 돈은 필요 없다고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 비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은 마지못해 살아가는 곳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살아가는 것이지, 죽는 것이 무서워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기 암 환자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써 있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천국의 비밀을 먼저 깨닫고 전파해야 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천국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이 세상의 기쁨을 휴지처럼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그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라는 측면에서는 천국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 진다면 유익합니다. 그러나 돈을 비롯한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들도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는 배설물이나 휴지와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천국 비밀을 알고 받아들일 때에 나타나는 세상의 비밀입니다. 천국 비밀을 모르는 한 세상의 비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는 이 지구와 우주 전체를 통 털어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이고 내가 그 사랑에 참여하여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22절을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자생하는 가시떨기는 생명력이 강한 잡초를 일컫습니다. 땅을 일궈놓으면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나와서 작물의 생육을 방해합니다. 땅이 좋으니 씨를 뿌리면 뿌리가 깊이 내릴 조건은 충분합니다. 문제는 싹이 나서 줄기가 자랄 때가 되면 이미 가시떨기가 먼저 자라서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가시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부자 청년을 살펴 볼 때에 재물로 인하여 고민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좀 더 뻔뻔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재산을 팔지도 않으면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의 좋은 점을 알기에 놓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재산을 팔지 않는다는 것은 재산의 좋음도 알기에 놓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재물의 유혹'이라고 번역된 원문을 보면 '풍성해지고 싶은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세상 것들은 마음의 욕구나 염려 같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매력적이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이 뿌리를 내리고는 있지만 세상에 대한 관심이 강렬하여 현실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새벽기도를 다니는데, 집에 돌아오고 회사를 가면 금세 세상일에 치이고 고민하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남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삶에서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세상의 개입입니다. 머리털만큼이라도 마음에 세상을 담고 있다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천국이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의 비밀을 통해 밝혀진 세상의 비밀은 세상의 가치는 결코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밭의 비유는 이러한 천국의 비밀을 마주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를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이 땅에만 기쁨과 만족이 있다고 믿어서 천국의 비밀을 무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발상에서 칼 마르크스는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으로 치부할 정도였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세상의 대상이 우선적인 기쁨과 만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천국이 파고들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천국에 대한 추구함은 있으나 세상의 일들에서 생겨나는 즉각적이고 강렬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의 목적을 윤리나 도덕적 삶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한 삶의 모습은 정확하게는 종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마음의 만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모두가 신사나 숙녀처럼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마음의 만족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마음에 천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상과는 다르게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윤리적 삶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반응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는 곧 세상의 영향을 받은 세 가지 상태가 극복된 마음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세상에 대해 철저한 죽음이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천국 비밀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때에 세상은 기쁨의 사냥터가 아니고 기쁨을 표현하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이론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이론적으로는 알더라도 생활화를 지속할 수 없다면 마음은 이윽고 세상의 영향을 받는 세 가지 밭 중에 한 가지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자아의식을 가져야만 세상과의 관계는 극복되고 천국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총회장님이든 교황님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

다. 이것은 절대불변의 법칙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중단된다면 마음은 이윽고 앞서 살펴 본 세 가지의 나쁜 땅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형통한 일들만을 현실로 삼고 기쁨의 처소로 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자녀세습 문제가 터지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현장을 마음의 기쁨으로 여겼기에 그 기쁨의 생산지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천국 비밀을 깨닫는다면 목회현장조차 마음의 기쁨과 만족에 대해서는 휴지와 다름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관계에 참여함으로써 나도 하나가 되는 그 비밀을 소유한 사람만이 세상을 기쁨과 만족으로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자아의식으로 세상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천국 비밀의 말씀이 길가나 돌밭 혹은 가시밭에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건강 달라고 돈 달라고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를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자아의식이 사라지지 않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 비밀이 나의 현실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